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9.2. ~ 9.8.)

이번 주 읽을 본문	가정	삼상 26 - 삼하 2	고전 7 - 13
	개인	겔 5 - 11	시 42 - 50
이번 주 암송구절	바른 신학 - 무조건적 선택		
	<p>에베소서 1장 4-5절</p> <p>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p> <p>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p>		



시편 42,43편 / 소망의 하나님을 향해**개요**

42:1-11 갈급함에서 소망으로

43:1-5 슬픔에서 소망으로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랍니다(시 42:1,2). 사람들의 말로 인해 눈물로 날을 보내며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던 기쁨을 헤아려봅니다(시 42:3,4).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찬송합니다(시 42:5). 사람들이 비방하는 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시 42:6-10).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찬송을 부릅니다(시 42:11).

하나님 앞에 원수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시 43:1-3). 이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간사하고 불의합니다(시 43:1). 그러므로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그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길 구합니다(시 43:2,3). 시인은 소원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찬양할 날을 고대합니다(43:4). 그리고 시편 43편의 후렴과 같은 말로 소망의 찬송으로 나아갑니다(시 43:5).

시편 42편과 43편은 같은 후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시 42:5,11; 43:5). 같은 신앙고백을 가진 시편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다르나 같은 신앙고백을 가지고 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듯이, 이 두 시편은 그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굳센 의지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한 개의 질그릇 같이 파상되기 쉬운 자이다. 인생은 약하고 환경은 강하니, 인생으로서 비관을 가지기 쉽다. ...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수중에 지배되고 있는 것인 만큼,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낙심할 것 없다."(박윤선)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소망의 하나님, 낙심하는 연약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연의 아픔으로 가라앉지 않게 하옵소서. 소망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9월 3일(화)

삼상27

고전8

겔6

시44

시편 44편 / 진토 속에 파묻혀 드리는 기도

개요

- 1-9 행하신 일을 들었나이다
- 9-22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 23-26 주여 깨소서

시인은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1,2절).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연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3절). 시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야곱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며 구원을 베푸시길 구합니다(4절). 이들의 힘과 승리와 자라는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5-8절). 시인은 자신들에게 임한 어려움이 주님의 부재에서 온 결과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9-16절). 이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지키고 있으니, 이들의 고난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17-22절). 그러므로 주의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23-26절).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험과 인식 속에서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신자에게는 무엇보다 이 고통이 가장 큰데, 이때는 단 한 사람의 내 편도 없이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외로이 기도하는 시인의 기도 그리고 신자의 기도는 응답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롬 8:26,27).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하나님이 늘 살아서 역사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힘을 얻게 하옵소서.

9월 4일(수)

삼상28

고전9

겔7

시45

시편 45편 / 사랑의 노래

개요

1-7 뛰어난 왕

8-17 왕에게 주어진 복들

시편 45편의 표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왕의 인격과 능력과 통치를 찬양합니다(1-7절). 찬양을 받는 이상적인 왕은 메시아를 예표합니다(히 1:8,9). 왕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왕이 가진 복을 드러냅니다(8-16절). 이 시편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을 높이 들어 찬송의 대상으로 삼습니다(17절).

왕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신자들은 이 시편에서 신부들과 같습니다(9-11절). 죄악된 이전 일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의 인격과 능력과 통치를 만방에 드러내는 새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복된 삶을 향해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왕이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시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말로, 나의 삶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시편 46,47편 / 엄위하신 하나님**개요**

46:1-11 피난처이신 하나님

47:1-9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시 46:1). 그러므로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시 46:2,3).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시 46:4,5).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시 46:6,7). 우리는 물론 온 세상이 하나님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시 46:8-11).

하나님은 온 땅에 큰 왕이십니다(시 47:1,2). 그 백성들의 영화 역시 얼마나 크지 모릅니다(시 47:3,4). 그러므로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시 47:5-9).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시 47:6)

하나님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며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지키시고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실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는 그분께 자기 자신을 전부 맡기는 것이며 그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시 47:7). 이 삶이야말로 복된 신자의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죽음인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이신 줄 아노라. ... 저들이 나를 쫓아낸다면 나는 엘리야와 같이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진다면 나는 예레미야와 같이 될 것이고, 나를 바다에 빠뜨린다면 요나와 같이 될 것이고, 굴에 던진다면 다니엘과 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친다면 스테반과 같이 될 것이고, 목을 벤다면 세례 요한과 같이 될 것이고, 매를 때린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될 것이다."(크리스소스툼)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하나님의 크심이 내 삶에 큰 힘과 위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에는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9월 6일(금)

삼상31

고전11

겔9

시48

시편 48편 /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개요

1-8 위대하신 하나님

9-14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 아름다운 이유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1-3절).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왕들 위에 있습니다(4-8절). 그의 백성들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9절). 주님의 이름과 그 찬송이 땅 끝까지 미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으며, 정의로우신 통치가 세상에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10절). 그 위대하심을 발견한 시인은 인생의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으로 인해 즐거움으로 찬송합니다(11-14절).

사람은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Finitum non possit capere infinitum)고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은 종종 그로 인해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그림'을 넘어선 큰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을 머리와 가슴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깨닫고 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범위가 한결 커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동안 작게만 보았던 하나님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과 더욱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찬양의 마음이 피어납니다. "여호와와 위대하시니" 이 사실을 알아 우리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기도합니다(골 1:10).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사는지 새겨볼 말씀입니다(고후 10:5).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 제게 기쁨이요 힘이여 위로입니다. 주를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온 마음을 사로잡게 하옵소서.

9월 7일(토)

삼하1

고전12

겔10

시49

시편 49편 / 존귀한 사람의 깨달음

개요

1-14 어리석은 자들의 길

15-20 존귀한 자들의 길

시편 49편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합니다(1-4절). 사람이 가진 재물은 형제를 구하지도 못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 값을 치를 수도 없습니다(5-8절).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나 그날을 위해 스스로 구비할 수 능력이 없습니다(9-12절). 이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라 합니다(13,14절).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15,16절).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존귀하게 지어진 존재로서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17-20절).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두려운 분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반가운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는 절대자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위에 세워진 인생 외에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들고 갈 삶이 없음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고전 3:11).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영접하시고 구원해내실 것입니다(12절).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 얼마나 견고한지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그 안에 살게 하옵소서.

시편 50편 / 감사로 드리는 제사**개요**

- 1-6 심판장이신 하나님
 7-21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22-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은 한없이 밝은 빛과 같아서 온 세상을 밝히 드러내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1-6절). 그러므로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겉보기에 좋은 어떤 제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하는 진실함으로 드려야 합니다(7-15절). 악인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시나 그들의 눈 앞에서 날날이 드러내고 책망하실 것입니다(16-21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22,23절).

예배의 본질은 행위나 방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 앞에 나아가는 마음의 진실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짐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과 행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창조의 은혜요, 두 번째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어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히 11:6).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예배합니다. 전 생애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기도제목 나눔

1. 교회를 위한 기도

- 1)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살도록
- 2) 성숙한 신앙을 가진 교회로 자라나도록
- 3)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도록
- 4)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 5) 여름성경학교(9.21.)를 위해

2. 나라를 위한 기도

- 1)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도록
- 2) 사회와 경제가 안정을 찾도록
- 3) 다음 세대 지도자가 준비되도록

3. 나를 위한 기도

- 1)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며
- 2)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묵상한 말씀을 토대로